

“밤 골목길 무서워요”...맘 편히 앱에 콕 찍어봐

〈MOM〉



광산구, 주민 참여형 안전지도 ‘맘편한 광산’ 모바일 앱 서비스

경찰, 순찰에 활용...올 7월 출시 이후 제감안전도 3계단 ‘썩춤’

외진 곳 등 범죄 취약지 정보를 구글 지도에 표시한 뒤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인터넷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던 ‘맘 편한 광산’ 서비스가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정보를 ‘업데이트’(update)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은 집이나 회사 등지를 오가면서 파손된 도로, 고장난 가로등처럼 보수가 필요한 공공시설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곳도 등록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은 뒤 앱을 실행, 구글지도에 해당 장소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구글 지도에 해당 장소가 표시된다.

민의 소리에 연동된다. 이후 곧바로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고, 관련 조치를 마치면 안전지도에 그 내용을 반영해 결과를 곧장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도 가능하다.

광주 광산경찰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맘 편한 광산’에 올라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확인한 뒤 해당 구역을 집중 순찰하는 등 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젊은 지구대·파출소 경찰들을 대상으로 ‘맘 편한 광산’ 앱을 활용한 순찰활동을 교육하고 있다. 이들은 112신고 등 출동이 없는 시간대에 스마트폰 앱을 실행한 뒤 담당 구역의 위험사항 등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구역을 찾아가 직접 살핀다.

앱을 활용한 순찰이 이뤄지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안전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해당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15년 제감안전도 조사 종합 결과’ 올해 6월 상반기 광주 5개 경찰서 가운데 광산경찰은 치안 만족도 5위(64.03점)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앱이 출시된 올 하반기는 66.49점을 얻어 2위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광산경찰은 광산구와 협조를 통해 주민들에게 ‘맘 편한 광산’ 앱 사용법을 홍보하고 기존 ‘두려운 곳’(어두움·불안·위협인물), ‘보행위험’, ‘보기 안 좋은 곳’ 등 3개로 분류돼 있던 제보 유형을 세분화해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맘편한 광산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産 모바일 게임 아프리카 진출

인터세이브, 가나 통신사와 업무협약... 현지법인 설립도

광주지역 모바일 게임회사인 인터세이브(대표 이갑형)가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 모바일 게임시장으로 진출하게 됐다.

인터세이브는 지난 13일 가나의 통신회사 나나텔(대표 최승업)과 업무협약을 체결(사진)한 뒤 가나 현지에 모바일 게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유럽 모바일 게임시장 진출을 위해 영국에 법인을 설립해 놓은 상태로, 이번에는 아프리카까지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나에

서 성공한 한인 기업으로 꼽히는 나나텔과 손을 잡게 됐다.

인터세이브 이갑형 대표는 “인터세이브의 해외법인 설립은 모바일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사업을 시작한 10년전부터 추진한 장기 프로젝트”라며 “영국과 가나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목표를 향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세이브는 내년 상반기부터 유럽과 아프리카 현지 법인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모바일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공공데이터 플랫폼 ‘온라인 생활안전지도’가 애플리케이션으로 활용돼 ‘안전 지킴이’,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광산구는 ‘맘(MOM)편한 광산’ 앱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온라인 공공정보 공개 저장인 ‘GSimap’에 관내 21개 동(洞)에

‘맘편한광산’ 앱, 주민 치안에 어떻게 활용되나



KCA, 우수 서비스 스마트 미디어 공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4일까지...스마트TV·디지털 사이니지 등 대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김명룡·이하 KCA)이 스마트미디어 우수 서비스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총 상금 규모는 2500만원이다.

KCA가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주최한 이번 공모는 ‘2015년도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우수한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를 선정·시상해 관련 산업의 개발의욕 상승 등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모 대상은 스마트TV(스마트 셋탑 포함) 및 디지털 사이니지(신호 체계·signage), 양방향 방송 등을 활용한 상용화했거나 시범 서비스를 완료한 뒤 상용화 예정인 스마트미디어 서비스가 해

당된다.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분야 대상자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과 상장(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팀에 각 500만원, 우수상 5팀 각 1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전달한다.

접수는 창조경제타운(creativekorea.or.kr)의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마감은 오는 24일이다.

시상식은 다음달 9일 차세대 미디어 대전이 열리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진행되며, 공모와 관련된 내용은 K-ICT스마트 센터(070-4493-5603)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모바일 속도 강화’ 구글플러스 서비스 개편

구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산하 소셜 미디어 ‘구글플러스’(구글+)를 전면 개편하고 단순화했다.

구글은 이날 공식 블로그에 스트림스 담당 디렉터 에디 케슬러의 이름으로 구글+ 서비스 개편 사실을 알렸다.

케슬러는 “커뮤니티와 컬렉션을 앞쪽 한가운데 놓아 완전히 새로 설계된 ‘구글+’를 도입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스타그램 등 관심사항 위주의 소셜 미디어와 비슷한 방향으로 변화된 것이다. 화제별로 게시물을 모아둔 뒤 한눈에

볼 수 있는 구글+의 ‘컬렉션’ 기능은 올해 5월에,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이들을 연결해 주는 ‘커뮤니티’ 기능은 2012년 말에 각각 생겼다.

케슬러는 이번 서비스 개편에서 컴퓨터 웹 브라우저를 쓰는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를 쓰는 페이지가 로드되는 속도가 빨라지도록 하는데도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2011년 구글+를 출시하고 소셜 미디어 분야 선두주자인 페이스북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해 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구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등 인기를 끌고 있는 자사 서비스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할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유지해오다가 올해 7월 이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곡성섬진강천문대 21일 과학콘서트 ‘달, talk, 끼’

곡성섬진강천문대는 오는 21일 오후 6시 2015년 과학토크콘서트 ‘달, talk, 끼’(달토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7개 천문과학관에서 동시 개최된다.

곡성섬진강천문대는 ‘달이야기’와

‘별빛탐험’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섬진강천문대 누리집(http://star.gok-seong.go.kr)이나 전화 061-363-8528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곡성, 전원주택

- 곡성군 입면 송전리 233-6번지
- 대지 72평, 건물 28평, 시멘트 벽돌조
- 1층 단독주택, 2012년 준공, 텃밭있음
- 광주에서 30분/ 금호타이어에서 1분
- 매매-6500만원

화순, 전원주택부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 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12월말 완공)
- 매매-1억6400만원(조정가)

수기동, 오피스텔

- 16층, 29평, 광주천 방향
- 전채수리, 주거겸 사무실, 대형주차장
- 매매-5500만원(일시불조건)
- 보5천만원에 월35만원 포함
- 용자 3천만원 가능

싸고 좋은 물건, 추천합니다!

주인직거래 H.010-6839-5900

해남, 전원주택

- 해남군 북평면 오산리 987-3번지
- 건물 28평(실평), 대지 53평(지분)
- 1층 단독주택, 2013년 10월 준공
- 2차선 도로접, 저운창고, 판매시설
- 매매-6500만원

금호리조트/회원권

- 법인, 등기제, 35평, 연 30박
- 분양가 3500만원
- 화순 / 제주 / 충무 / 설악
- 아산스파 / 금호패밀랜드 공유
- 매매 - 2500만원

금호동, 근린상가

- 서구 금호동 243-6, 과거 7080자리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701호, 120평, 전망최고
- 매매-6억 5천만원(용3억6천 있음)
- 보5천만원에 월 250만원 포함

투자자모임

- ▶ 투자 하실분 / 공동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 돈 빌려 주실분 / 제1순위 근저당 설정 연 10% 이자 지급
- ▶ 사무실 같이 쓰실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